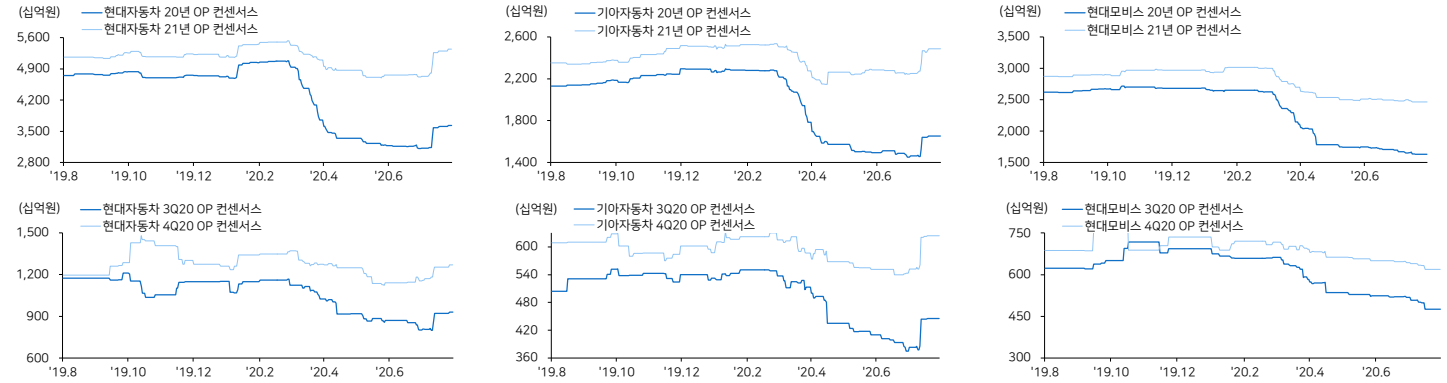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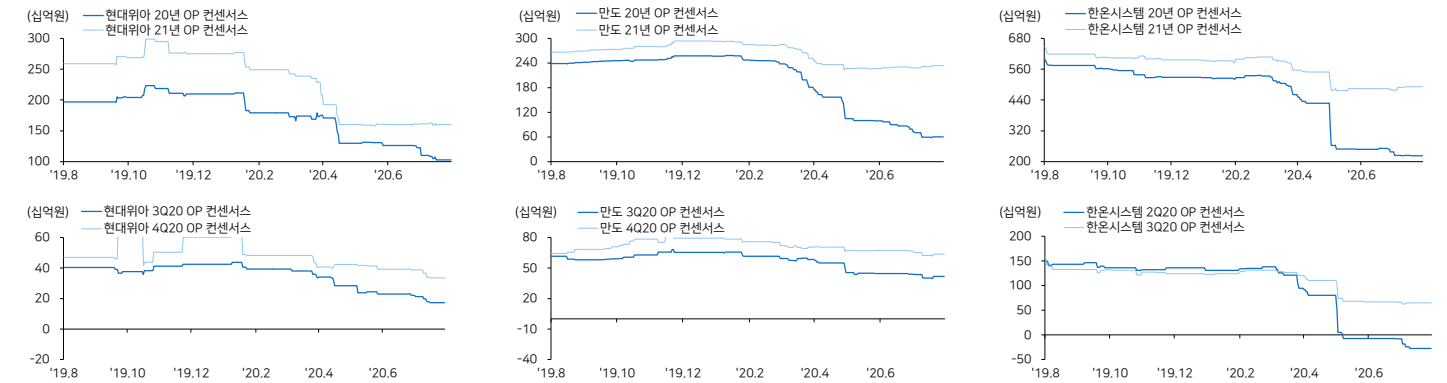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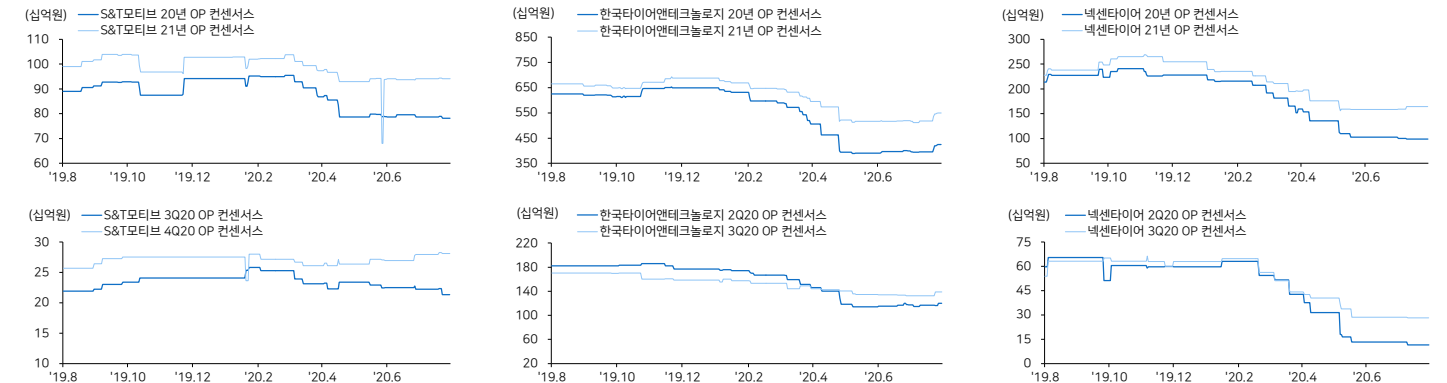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부터 'OTA'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무선 업데이트(OTA) 시대를 열.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에 한정됐던 OTA 서비스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전자제어장치 전반으로 확대됨. <https://bit.ly/3ktAuJ9>

현대차 제네시스, 전월 가다듬어 관리장성 두드린다 (글로벌이코노믹)

최근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와 관련해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외신은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임원 인사에 대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 <https://bit.ly/3gkCW4t>

현대차, VISA 출시 보일 부사장 영입...커넥티드 커머스 강화 (서울경제)

현대차(005380)그룹이 커넥티드카, 차량 내 결제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라비시 보일(사진) VISA 커넥티드 커머스 담당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발표. <https://bit.ly/2PFQEda>

기아차 인도 공장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넘어서... 지역 감염 급증에 '속수무책' (아주경제)

기아자동차 인도 첫 공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큰 위기를 맞이함. 인도 현지 지역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맞은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3kAG85h>

셀트스 영광 있다가...기아차, 인도시장 겨냥 '쏘넷' 공개 (한국경제)

기아자동차가 커지는 인도 소형 SU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쏘넷'(SONET)의 양산형 모델이 공개. 지난 2월 콘셉트가 형태로 선공개된 바 있는 쏘넷의 실제 양산형 모델이 국내 언론에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2F1rzX5>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개편... '4년 내 3종 출시' (한국일보)

현대차가 친환경차 모델명인 '아이오닉'을 앞으로 생산할 전기차 모델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전환. 내년 CUV 형태의 전기차 '아이오닉5(NE)'를 시작으로 향후 4년 간 3개 차종을 출시해 테슬라, 폭스바겐 등과 맞선다는 계획. <https://bit.ly/30Hbe37>

Hyundai & Urban-Air Port Working On Urban Air Mobility Infrastructure In UK (CT)

Hyundai Air Mobility (part of Hyundai Motor Group) and Urban-Air Port have teamed up to "explore new, purpose built, multifunctional and scalable infrastructure to enable Urban Air Mobility (UAM)." <https://bit.ly/2PEX4nu>

미국차도 유럽차도, '전기차는 이리나 하이브리드부터' (조선비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차를 주력 모델로 내놓으면서 한국 수입차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과거 토요타 차를 사는 경우엔나 선택지로 고려되던 HEV가 유럽차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https://bit.ly/3aaMi71>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